

CEO 동경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등 영남본부 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11월 7일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신동고가 등 영남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을 고려한 건설계획 및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한국철도학회 '2013 추계학술대회'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11월 7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주최된 한국철도학회 주관 '2013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철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건설공사 입찰 시 서류 제출 간소화

- 공단·건설협회 입찰심사자료 전산연계 서비스 협약 체결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11월 8일 수도권본부에서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 시 참여사가 제출해야 할 12종의 서류를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협회와 체결했다.

그 동안 공단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심사용 서류를 협회로부터 별도로 발급받아 공단에 직접 제출하고,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번 협약 체결로 공단과 대한건설협회 간 전산망을 상호 연계하여 협회가 보유한 12종류의 서류를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바로 제출하게 되므로, 공단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고 심사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본부 관계자는 "협회의 전산연계를 통해 입찰참가업체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고 불만을 해소하는 동시에 허위서류 제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협력적 기업 생태계 지원'의 성과로써, 앞으로도 다른 관련 협회와의 전산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용품에 대한 공단 표준규격(KRSA) 관리 강화

- 표준규격 관리 체계 확립으로 품질 UP & 공정성 확보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철도용품 표준규격(KRSA)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퇴직자 고용업체 등과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사업부서별로 분산 관리하던 73개의 철도용품 표준규격을 기준부서에서 전담 관리하여 업계의 유착 가능성 배제, ▲사업별 공사 발주 시 작성된 자체 구매사양서의 표준규격화로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 ▲신기술, 특허에 의한 자재 및 기술변화주기가 빠른 시스템자재에 대하여 1년 주기로 확인하는 잠정표준규격제정, ▲표준규격의 제정 시 외부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로 전문성, 공정성 강화, ▲표준규격의 홈페이지 일괄공고로 정보 접근 편의성 향상 등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용품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규격 관리 체계 확립으로 철도용품 구매·납품 과정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철도시설의 품질향상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민을 위한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준 제정으로 안전호을 강화

-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작성 지침' 제정 -

안전실(실장 허복수)은 공사 착공 시 시공사가 작성하는 근로자 건강관리, 건설장비 및 위험물질 관리 등에 관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공사 중 시설물의 부설 방지 및 재해예방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통합한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작성 지침'을 제정하고, 11월부터 모든 철도건설현장에 적용한다.

그 동안 안전관리계획 등이 동일함에 불구하고 공종별로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실은 두 가지 계획서를 통합 및 표준화하여 지침으로 제정하였으며, 이로써 향후 안전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안전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도건설현장에 적용되는 품질·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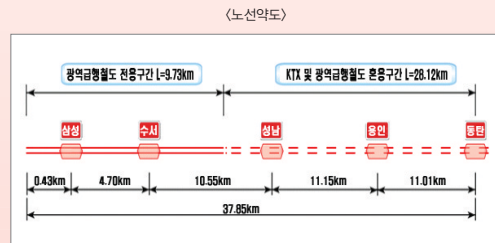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평생학술관에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사업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경기도 성남, 용인 인근 200만 주민의 서울 강남 접근 편의성과 신속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서 제기된 도심구간 도심도 터널굴착 및 운행 시 소음·진동 문제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개최하게 되었으며,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시행자측과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대표들과의 토론이 순서로 진행됐다.

본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반영한 최적의 공법으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노반 설계감리 직접 시행으로 211억원 절감

건설본부(본부장 이동춘)는 2011년 이후 시행한 노반설계에 대한 감리를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직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211억원의 설계감리비를 절감했다.

본부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설계기준 제·개정, 설계프로세스 개선, 과잉시설 없는 시설계획을 통해 도담~영천 복선전철 및 수도권 고속철도 등 69건의 설계감리를 직원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총 211억원의 설계감리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부는 사업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상시 사내교육, 토목·건축·계도·전기·차량 등 종합시스템 엔지니어링사업인 철도건설의 분야간 인터페이스 확보를 위한 SE(system engineering) 활용 등 직원 기술역량 향상을 통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설계감리토록하여 해외철도 건설시장의 적극적 진출과 철도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본부는 경제적 설계·시공을 통한 철도 경쟁력 확보와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직원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제적인 철도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동부산관광단지지역 건설 추진

- 2014년 7월 설계 완료 후 2015년 12월 공사 완공 -

건설본부(본부장 이동춘)는 부산시 기장군 기장을 당사리 일원의 동부산관광단지 이용객들이 부산~울산 복선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부산관광단지(가칭)를 2015년 12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동부산관광단지지역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철도 접근성 향상 및 단지 활성화에 위해 부산~울산 복선전철 구간 중 송정역과 기장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사로, 부산시가 사업비 163억원을 부담하여 공단이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9월 협약 체결했다.

본부는 이달 중으로 역사설계 입찰공고를 거쳐 설계사를 선정, 2014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8월 본격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동부산관광단지지역이 개통되면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철도 이용객의 접근성이 좋아져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